

---

## 스웨덴 사회의 모국어 교육 인식에 관한 연구 2014~2018 스웨덴 의회 발의안 분석을 중심으로\*

이성준\*\* · 홍세영\*\*\*

---

본 연구는 스웨덴 국회에서 2014~18년 사이 이주 배경 학생의 모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발의된 각종 안건의 질적 주제분석을 통해 현재 스웨덴 국회 내 논의되고 있는 모국어 교육 관련 담론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기간 발의된 ‘모국어(modersmål)’ 단어를 포함하는 모든 안건이 스웨덴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되었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스웨덴 정당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모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지만, 정당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모국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총 네 가지 서로 다른 담론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스웨덴 모국어 교육의 발전 방향을 예상하고 연구 결과가 한국 모국어 교육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논한다.

**주제어:** 모국어, 이중언어, 다문화가정 자녀, 담론 분석, 스웨덴 의회

---

\* 이 연구는 2018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주저자 및 교신저자, 한국외국어대 브라질학과 연구교수

\*\*\* 공동저자,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 1. 서론

국내 다문화 인구가 100만에 육박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한국에서도 다양한 인종 또는 민족이 서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다문화 사회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논의 가운데 교육 문제, 특히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교육 문제는 학계 및 일선 관련 정책 입안자의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관심은 다문화 가족 자녀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어에 익숙지 않은 이주(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한국인 부모를 가진 동년배 또래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언어능력 발전이 지체되는 모습을 보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낮은 학업 성취도, 학교생활 부적응, 자아 및 국가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가족 내 갈등 등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상급 학교 진학이나 사회 진출 등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경험적 관찰에서 출발한다(황상심·강복정, 2016; 이승숙·배지희, 2015). 물론, 이러한 문제는 향후 다문화 가족 자녀에 대한 차별 의식, 가족 해체 현상 그리고 심지어 이들의 사회적 빈곤 계층화 등과 같이 훨씬 해결이 곤란한 사회문제로 향후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그 심각성이 더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Kymlicka & Patten, 2003; King & Schielmann, 2004; Romaine, 2006; Sen, 2006).

물론, 다문화 혹은 이주 배경을 가진 가족 자녀의 언어 문제는 한국만이 겪고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다.<sup>1)</sup> 소수 언어를 (주로, 가정에서) 모국어로 사

1) 국내의 경우 이주(부)모의 모국어 교육에 관한 관심은 2009년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언어강사 양성 및 배치 사업’ 그리고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높아지기 시작했다(고은, 2010; 이승숙·곽승주, 2013; 신동일·김가현·박수현·박세은, 2015; 우영경·김은하, 2016; 황정원, 2016). 이들 사업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 이주(부)모를 이중언어코치 및 다문화언어강사로 양성하고 이들을 직접 일선 교육 현장에 투입한다는 점에서 과거 한국어 교육만을 강조하던 언어동화정책(monolingual policy)을 넘어 한층 진일보한 다언어주의정책(multilingual policy)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특히 전자의 경우 실무적 차원의 다양한 문제 - 예를 들면, 비정규직 문제, 강사 수요·공급 불일치 문제, 지나치게 낮은 임금 등 - 로 말미암아 현재 사업 자체가 표류하고 있다. 또 다른 언급할만한 문

용하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그렇지 않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보다 평균적으로 낮다는 사실은 이미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신의 모국어를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거나 결국 성인이 되어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Allardt, 1979; Corson, 1990; Tollefson, 1995). 하지만 여러 실증 연구가 모국어 교육이 학습자의 주류언어 습득, ‘건강한’ 문화적 정체성 형성, 전반적인 학습 능력 향상 등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잇달아 보고하기 시작하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국제기구가 모국어 교육 시행을 각국 정부에 적극 권고하면서 모국어 교육에 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2000년대 초 중반을 기점으로 크게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들 국제기구 가운데 특히 UNESCO는 2월 21일을 ‘세계 모국어의 날(International Mother Language Day)’로 지정, 이를 매년 기념하고 있다(지정일은 1999년 11월 17일).

현재 이주 배경을 가진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약 23%에 달하는 스웨덴도 이민자 및 난민 가족 자녀의 언어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1977년부터 지방자치단체(kommun)의 모국어 교육을 의무화한 바 있다. 필자가 파악한 바로는 자국 내 소수 민족이 아닌 외부에서 유입된 이주민을 대상으로 세금을 투입, 공교육 차원에서 모국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스웨덴이 유일하다. 현재 스웨덴에는 약 3,000여 명의 모국어 교사가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수는 한국의 약 6~7배에 달한다. 스웨덴 인구가 한국의 약 1/5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놀라운 수치이다.<sup>2)</sup> 더 나아가 스웨덴의 이민자 및 난민 사회통합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다문화에 대한 일반

---

제는 정작 상당수 다문화 학생이 모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그다지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6년간 시행된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결과를 따르면 다른 다문화 지원 사업과 비교해 이중언어 교육을 희망하는 다문화 청소년 수는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약 10% 수준).

- 2) 하지만 스웨덴 내 모국어 교사 수는 전체 모국어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원칙적으로 모국어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은 스웨덴어와 모국어를 같은 비중, 즉 50:50의 비중으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모국어 교육 시간은 교사 부족 문제로 말미암아 일주일에 40~60분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국민의 사회적 인식도 매우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sup>3)</sup>

그렇다면 이미 모국어 교육을 약 40년 넘게 시행하고 있는 스웨덴은 모국어 교육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과연 스웨덴은 어떠한 목적 또는 의도를 가지고 모국어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을까?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스웨덴 의회에 제출된 의회 발의안을 정당별로 비교함으로써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스웨덴은 이미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평등에 기초한 높은 수준의 사회통합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동시에 2015년 이후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크게 확산하면서 극우 정당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이중적인 모습도 보인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민자 및 난민 사회통합정책의 핵심을 구성하는 언어정책, 그 중 특히 모국어 교육에 대한 개별 정당의 입장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를 비교하는 것은 앞으로 스웨덴의 모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통합정책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표를 가진다:

- 1) (2014~18년 제출된 의회 발의안 분석을 통해) 스웨덴 의회 내 모국어 교육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기술하고,
- 2) 이를 바탕으로 스웨덴 모국어 교육의 향후 발전 방향을 가늠하며,
- 3) 마지막으로, 이러한 스웨덴 사회 내 모국어 교육 관련 담론이 한국 모국어 교육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간략하게 논한다.

3) 이는 2016년 여성가족부가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의 조사를 인용해 발표한 ‘2015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결과를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및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 항목에서 스웨덴의 경우 전체 응답자 가운데 3.5%만이, 그리고 ‘일자리가 귀할 때 자국민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 항목에서 14.5%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했다(한국은 각각 31.8%와 60.4%).

## 2. 선행 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본 장은 스웨덴의 모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로, 스웨덴 모국어 교육의 발전 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기술함으로써 스웨덴이 모국어 교육을 추진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지식을 제공하고 한다. 둘째로, 모국어 교육을 포함, 다문화 정책 형성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요소를 크게 두 가지, 집권 세력의 정치적 성향 그리고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 내 일반적인 인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2.1. 스웨덴 모국어 교육 담론의 흐름: 역사적 관점<sup>4)</sup>

스웨덴 내 모국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가장 최초의 주장은 아마도 스웨덴의 저명 언어학자 Nils Erik Hansegård(1918~2002)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1968년 발간된 자신의 저서 「Tvåspråkighet eller halvspråkighet?」[이중언어 또는 반쪽언어?]에서 스웨덴 북부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핀란드인 자녀가 모국어 교육의 부재로 말미암아 핀란드어와 스웨덴어 모두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현상을 소위 ‘semilingualism(불완전한 언어습득)’으로 명명하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먼저 ‘제대로 된’ 모국어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스웨덴은 급격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나타난 노동력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접국으로부터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이들 가운데 특히 이주 핀란드인, 에스토니아인, 유대인 등은 모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 말 이민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스웨덴의 이주민 통합정책은 스웨덴어 학습만을 강조하던 ‘동화적’ 관점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언어의 평등한 지위를 인정하고 공존을 모색하는 ‘통합적’ 관점으로 급격하게 선회하

4) 본 장은 주로 Salö et al.(2018)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이들에 대한 모국어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되기 시작했다.<sup>5)</sup> 결과적으로, 이는 1977년 지방자치단체의 모국어 교육을 의무화하는 “hemspråksreformen(가정언어개혁)”으로 이어졌다. ‘Hemspråksreformen’ 법안이 별다른 정치적 갈등 없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위에서 언급된 학계의 ‘semilingualism’ 관련 논의를 빼놓을 수 없다. 다시 말해, 당시 스웨덴 의회는 스웨덴어 지식이 없는 이주 배경 자녀의 올바른 언어 성장이 모국어 교육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학계 주장에 귀를 기울였으며, 실제로 이를 정책 시행의 중요한 논리적 근거 가운데 하나로 삼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1980년 이후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서 스웨덴의 평등에 기초한 관용적 이주민 통합정책은 점차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당시 이주 배경 학생의 모국어 수업 참가율이 매년 점차 하락했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비록 일부지만) 모국어 교육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계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스웨덴 출신 재미 언어학자 Christina Bratt Paulston(1932~2016)은 모국어 교육 관련 스웨덴 정부 용역 보고서에서 스웨덴의 모국어 교육 담론은 1) 사실상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semilingualism’ 관련 논의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며, 2) 모국어 습득이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후 모국어 교육 담론은 이주 배경 자녀의 모국어 능력 향상보다 스웨덴어 학습에 필요한 “도구”로서 모국어 교육의 역할에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이와 더불어 모국어 교육의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1991년 경제위기 이후 모국어 교육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더욱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경제위기 이후에도 지금까지 모국어 교육은 (비록 애초에 제시된 다문

5) 이러한 스웨덴의 다소 ‘급작스러운’ 이민자 및 난민 관련 제도 변화의 원인으로 다양한 요인이 논의된 바 있으나, 관련 선행 연구는 주로 1) 평등과 연대를 중시하는 스웨덴의 문화적 전통에 기반하는 스웨덴 사회민주당 정권의 기본 정책 방향, 2) 소모적인 정치적 담론이 아닌 관련 전문가의 사실에 근거한 의견이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스웨덴의 독특한 위원회 제도(commission system) 등을 핵심 요인으로 꼽는다(Johansson, 1992).

화주의 이상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지만 폐지되지 않고 꾸준히 이어질 수 있었다.

## 2.2. 다문화 정책의 사회 정치적 관점

여러 이유로 자신의 모국을 등지고 타국에서 새로운 터를 잡고 생활하는 이주민 가운데 대부분은 문화적 갈등에 따른 다양한 심리적 변용 현상을 경험한다. Berry(1997)은 이를 크게 네 가지, 즉 동화(assimilation), 통합(integration), 분리(sepa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로 구분한 바 있다. 동화는 모국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주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주국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종종 ‘멜팅 팟(melting pot)’ 또는 ‘인종의 용광로’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통합은 모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주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서로 다른 문화가 한 사회 내 동시에 공존한다는 점에서 ‘이중문화주의(biculturalism)’ 또는 ‘샐러드 볼(salad bowl)’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Triandis, 1997). 분리는 동화와 반대되는 양상으로 이주국의 문화를 거부하면서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는 것이며 주변화는 이주국과 모국의 문화 모두 거부하면서 경계인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주국은 이주민의 동화 또는 통합을 추구하지만, 분리나 주변화 현상도 때에 따라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이주민의 문화적응 양상이 달리 나타나는 이유로 물론 여러 원인을 꼽을 수 있겠지만, 특히 이주국 내 이주민에 대한 지배적인 관념 또는 태도는 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념이나 태도는 이주국의 기본적인 국가 이념 또는 정체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결과적으로 이주국 내 다문화 제도의 성격을 규정한다(Alarian, 2011; Davies, Steele & Markus, 2008; Berry, Phinney, Sam & Vedder, 2006). 따라서 다문화 제도를 실증적 차원에서 살펴본 여러 선행 연구는 이주국 내 정치적 성향 및 복지국가 양상이 이주민의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 바 있다(고상두, 2012; 설동훈·이병하, 2013; 오창룡, 2016; Boeri & van Ours, 2013; Faist, 1995; Sainsbury, 2012).

관련 선행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sping-Andersen(1990, 1996)은 사회의 탈 상품화 그리고 계층화 정도에 따라 복지국가를 크게 세 가지, 즉 1) 자유주의 국가, 2) 보수주의 국가 그리고 3)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구분했고, 이들 복지국가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국가 이념을 추구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자유주의 국가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과 가족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는 국가를, 보수주의 국가란 전통을 강조하며 교회 또는 귀족 등 사회 엘리트의 역할을 강조하는 국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민주주의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사회 정의의 실현을 강조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Sainsbury(2006)는 이와 같은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이주민의 문화적응 양상이 실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비교 연구를 통해 보인 바 있다. 그녀의 연구 결과를 따르면 자유주의 국가로 분류 가능한 미국은 전반적으로 이주민 배제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분류 가능한 스웨덴은 이주민 통합의 양태를 보였다. Faist(1995)도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를 제시했는데 그는 미국의 ‘잔여주의’, 즉 선별적 복지국가 체제는 이주민의 필연적으로 사회권을 한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이주민의 인종화(racialization) 및 종족화(ethnicization)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Banting(2005)는 사회통합 정책을 크게 세 가지, 즉 1) 자유주의 정책, 2) 국가주의 정책 그리고 3)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구분했다. 자유주의 정책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별이 엄격하다. 개인의 기본권은 공적 영역의 몫이지만 사적인 삶이나 복지는 시장이나 공동체 또는 가족의 몫이며, 따라서 이주민을 따로 구분하여 재분배 정책을 펼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국가주의 정책은 문화적 다양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따라서 이주민이 이주국의 국가 정체성, 문화, 언어 등에 최대한 흡수·동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주의는 서로 다른 문화 간 차이를 인정하면서 한 사회 내에서 이들 간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며 이 과정에서 때로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간 구분이 다소 모호해지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Banting(2005)은 미국과 캐나다의 재분배 정책이 해당국 내 이주민의 문화적응 양상에 뚜렷한 차이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상대적으로 재분배 정책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미국의 경우 동화 양상이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 통합 양상이 나타났다.

이외에도 여러 실증 연구가 복지국가 양상에 따라 이주민 통합 정도가 실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실증적 차원에서 검증한 바 있다. 예를 들어, Alesina & Glaeser(2004)는 유럽과 미국을 비교하면서 사회지출의 차이가 국가 내 인종 다양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Máté, Ímran & Krisztina(2017)도 이주국의 최저임금 수준, 실업급여, 노동조합 가입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존재 여부에 따라 이주민이 이주국에서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지위 또는 사회 내 이주민 통합 또는 배제 정도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Boeri & van Ours(2013)도 통합정책의 핵심으로 언어 및 고용정책을 꼽으면서 이에 따라 이주민의 사회적 지위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실증적 차원에서 제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 논의를 따르면 이주민에 대한 재분배 정책이나 사회지출이 높은 복지국가는 일반적으로 높은 통합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좌파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회민주주의 국가, 특히 북유럽 국가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인데 이들 국가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계층 또는 계급 간 격차를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한다(Borevi, 2014). 이러한 북유럽 국가의 강한 진보주의 성향은 이주민의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법안 제정으로 이어진 바 있으며 제한적이긴 하지만 거주권에 따라 이주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여 선거제도를 통해 이들의 의견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에서 힘쓰고 있다(Valdez, 2012).

하지만 이러한 북유럽식 이주민 사회통합 모형이 최근 극우 정당의 부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시리아 난민 사태 이후 많은 수의 난민이 유럽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여러 유럽 국가에서 반이민주의를 내세우는 극우 정당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했다. 북유럽 국가의 경우, 2007년 덴마크, 2009년 노르웨이, 2010년 스웨덴, 2011년 핀란드에서 극우 정당이 원내진출에 성공하면서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강유덕·오현정 2011). 홍세영(2017)은 북유럽 국가의 다문화 복지체제를 분석하면서 스웨덴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통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덴마크는

동화 그리고 노르웨이는 절충주의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덴마크가 동화주의를 표방하게 된 것은 우파 진영과 극우 정당의 연합 정권 시기 다문화 정책이 수정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이민자 자격 요건을 강화했으며 이주민의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이주민 유입을 크게 줄인 바 있다(Jensen, Schmidt, Vitus & Weibel, 2010).

스웨덴의 사회통합 정책도 극우 정당인 스웨덴민주당의 등장으로 불투명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신광영(2017)은 ‘복지 쇼비니즘’ 혹은 ‘복지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스웨덴민주당의 부상은 극단적인 정치적 분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스웨덴의 기본적인 국가 이념을 손상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의 이주민 관련 정책은 스웨덴민주당의 부상 이전에도 집권 정당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였다. 사회민주노동당 집권 이후 복지국가 황금기로 일컬어지는 1960~70년대 사회민주주의 체제에서 스웨덴 정부는 이주민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낮추고 이들의 주거생활 수준을 평준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졌다(Open Society Foundation, 2014).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우파정권이 이주민 관련 정책에 친시장주의 논리를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게토화(ghettoising)’ 등 이주민의 분리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김철주, 2017).

### 3. 연구방법론

이미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스웨덴 의회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발의된 모국어 교육 관련 안건의 정당별 분석을 통해 스웨덴 내 모국어 교육에 관한 다양한 담론을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스웨덴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발의안(motion)이 수집되었다(구체적으로, 스웨덴 의회 홈페이지 내 ‘dokument & lagar(문서와 법안)’ 메뉴에서 ‘modersmål(모국어)’ 단어를 포함하는 모든 발의안을 검색). 검색 결과 1965년부터 총 835건이 검색되었는데 이를 정당별로 구분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참고로 아래 표에서 전체 건수가 835건을 초과(459+477+5=941)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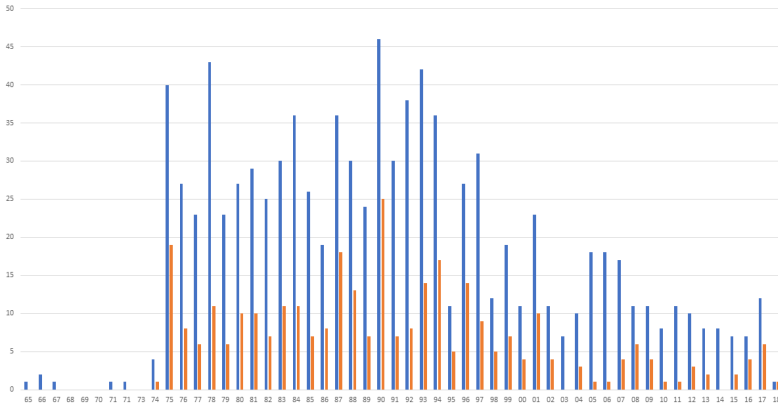
는 여러 당이 한 안건을 공동으로 발의한 경우 당마다 1건씩 숫자가 올라가기 때문이다(예. 세 당이 한 안건을 공동으로 발의한 경우 한 건이 아닌 개별 당마다 한 건씩 총 세 건으로 취급).

<표 1> Modersmål 단어를 포함하는 모든 발의안의 정당별 개수

	사회 민주 노동당	좌파당	녹색당	온건당	중앙당	기독교 민주당	자유당	스웨덴 민주당	신민주주 의당	무소속
정당별 건수	250	136	73	126	97	76	128	43	7	5
노선별 건수	좌파, 총 459건			우파, 총 477건						5

또한, 모국어 교육에 대한 의회 내 전반적인 관심 수준을 함께 파악하고자 ‘hemspråk(가정언어)’ 단어를 포함하는 모든 발의안의 연도별 증감 추이도 함께 살펴보았다(총 320건 검색). 이는 ‘모국어 교육’이라는 용어가 스웨덴 내 널리 받아들여지기 이전 대부분의 발의안 및 법안은 ‘가정언어’란 단어를 대신 사용했기 때문이다. ‘hemspråk’과 ‘modersmål’ 단어가 포함된 전체 의회 문서와 이 가운데 발의안 수의 연도별 증감 추이는 <그림 1>과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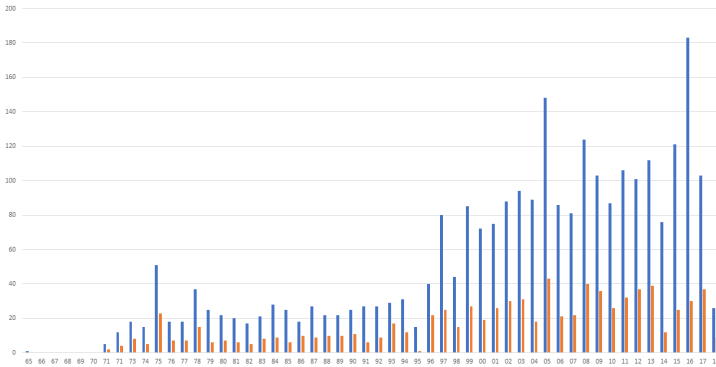
<그림 1> ‘Hemspråk’ 단어를 포함하는 모든 의회 문서 및 발의안 수 증감 추이



파란색 그래프 = 전체 문서 수; 빨간색 그래프 = 발의안 수

<그림 1>을 살펴보면 1970년대 후반 그리고 1990년대 초에 모국어 교육에 대한 의회의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hemspråksreformen’ 그리고 90년대 초의 경우 스웨덴 경제위기에 따른 모국어 교육 예산 삭감이 주된 증가의 원인으로 보인다. 비슷한 맥락에서 <그림 2>를 살펴보면 2000년대 중반 그리고 2010년대 중반 그래프의 급격한 상승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전자의 경우 스웨덴 내 5개 공식 소수 민족 언어(사미어, 메엔키엘리어, 표준 핀란드어, 로마니어, 이디시어)의 지위 개선 문제가 그리고 후자의 경우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던 모국어 교육을 원격 교육 업체에 위탁하는 문제가 (특히 우파를 중심으로) 의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2> ‘Modersmål’ 단어를 포함하는 모든 의회 문서 및 발의안 수 증감 추이



파란색 그래프 = 전체 문서 수; 빨간색 그래프 = 발의안 수

총 835건의 발의안 가운데 2014년 총선거 이후 구성된 의회<sup>6)</sup>, 즉 2014/15~2017/18 사이 발의된 안건을 검색한 결과 총 104건이 검색되었다. 물론, ‘modersmål’ 단어를 포함하는 모든 안건이 검색 대상에 포함된 관계로 초기 검색 결과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안건을 포함한다. 이들 안건 가운데 일부는 본 연구의 취지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예. 스웨덴 북쪽 지방 고속도로 건설 안건). 하지만 상당 수 안건은 모국어 교육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개별 정당의 모국어 교육에 대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간접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예. 초중고교 선택권 관련 문제). 검토 결과, 총 72건이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워드 기준 약 150장 분량).

6) 2014년 총선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선거 결과, 사회민주노동당이 31.2% 득표로 선거에서 승리했으며(1석 추가) 온건당은 23.2% 득표로 패배(23석 상실), 그리고 극우 성향의 스웨덴민주당은 12.9% 득표로 원내 3당(29석 추가)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최대 승자가 되었다.

&lt;표 2&gt; 정당별 최종 표본 수

	사회 민주 노동당	좌파당	녹색당	온건당	중앙당	기독교 민주당	자유당	스웨덴 민주당
정당별 건수	7	10	5	16	17	4	11	11
노선별 건수	좌파, 총 22건			우파, 총 59건(공동안 중복 건 제거 시 총 50건)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질적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본 연구진은 먼저 최종 표본으로 선정된 모든 발의안을 최소 3번 이상 읽은 후 개별 발의안마다 핵심 주제를 도출했다(예. 모국어 원격 교육 시행). 이후 추출된 각각의 주제를 위에서 소개된 이론적 배경에 기초하여 다양한 기준 - 예를 들면, 정당의 정치적 성향, 모국어 교육을 옹호 또는 부정하는 궁극적 원인(예. 교육적 효과 대 사회적 효과), 모국어 교육의 주체로서 정부 또는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도, 다문화 정책의 기본 방향(예. 동화 대 통합) - 에 따라 정렬, 비교했다. 정렬 결과에 따라 사용 기준이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개별 발의안을 새로운 각도에서 재해석하고 이를 통해 상위 차원의 주제를 도출하고자 노력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주제 그리고 이에 대한 해석을 다른 두 명의 연구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최대한 높은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 4. 분석 결과

본 장은 개별 정당별로 수집된 발의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한다.

#### 4.1. 사회민주노동당(Socialdemokraterna, S)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은 현재 스웨덴 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제1정당이다. 1930년대부터 약 40년간 장기 집권하면서 스웨덴 복지국가 형성의 주역을 담당했으며 이념적으로는 보통 중도좌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표 3〉 사회민주노동당의 모국어 교육 관련 발의안

발의안 제목	연도	주체	요약
Matematikundervisning i grund- och gymnasieskolor(초중고교 수학 학습)	14/15	개인	* 수학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 가운데 상당수가 이주 배경 학생 * 이들을 위해 모국어로 수학 학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Kallelser på flerspråk än svenska till asylsökande(망명 신청자에게 스웨덴어 외 다른 언어로 통보)	14/15	개인	* 이민청은 스웨덴에 입국한 망명 신청자에게 스웨덴어 외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보 또는 정보를 제공해야 함
Minoritetsspråk i äldreomsorgen(요양원 내 소수 언어)	16/17	개인	* 양로원에 머무르는 핀란드 노인을 위해 양로원 내 핀란드어 서비스가 확충될 필요가 있음(참고로 거의 같은 법안이 중복으로 발의)
Minoritetsspråk i förskolan(유치원 내 소수 언어)	17/18	개인	*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도 유치원에서 모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함
Om att stärka flerspråkigheten i Sverige(다중언어 촉진과 관련하여)	17/18	개인	* 제2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음 * 더 많은 학생이 제2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 필요
Tyska språket i skolan(학교 내 독일어 교육)	17/18	개인	* 제2 외국어로서 독일어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민주노동당의 모국어 교육 관련 입장은 이념적 차원에서 이민자 및 난민의 모국어 사용 권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닌 특히 언어정책 및 교육적 차원에서 다중언어 사회 건설 촉진 및 이주 배경 학생의 성적 향상에 모국어 교육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흥미로운 점 가운데 하나는 모든 안건이 개별 의원을 통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스웨덴 의회에서 개인 발의 안건의 비중이 약 20%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나머지는 위원회 및 정당 안건) 이는 사회민주노동당이 현재 모국어 교육을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고 있지 않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유치원 모국어 교육의 확대를 주장하는 안건도 함께 보이는데 이는 유치원 수의 확대 그리고 모국어 교육을 포함, 전반적인 유치원 교육 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이전 회기 중 우파 진영이 추진한 '유치원 교육 개혁(förskolelyft)'에 대한 사회민주노동당의 응답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실제 학교 내 모국어 교육이 아닌 공공 부문 내 스웨덴어 외 모국어 서비스 확장의 경우 사회민주노동당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 양로원 내 핀란드어 서비스 확장 또는 이민청의 다국어 서비스 제안 등은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사회민주노동당은 모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다소 중도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모국어 교육의 필요성은 비록 원론적인 수준에서 인정하지만 이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는 (다른 좌파 정당보다 상대적으로)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 4.2. 좌파당(Vänsterpartiet, V)

<표 4> 좌파당의 모국어 교육 관련 발의안

발의안 제목	연도	주체	요약
med anledning av prop. 2014/15:45 Utbildning för nyanlända elever -	14/15	위원회	L* 이주 가정 자녀가 오랜 기간 '준비 과정'에 머무르는 것보다 일반 학교에서 모국어 지도를 받으며 학교에 다니는 것이 바람직



mottagande och skolgång(이주 학생을 위한 교육)			* 모국어 학습 및 지도를 일주일에 최소 2 시간으로 늘리는 것이 현실적 목표(현재 약 1시간)
Förskolan(유치원)	15/16	위원회	* 유치원에서 모국어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먼저 정책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
Äldreboende(요양원)	15/16	위원회	* 노인 요양 시설 내 다양한 언어 수요를 파악한 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med anledning av prop. 2015/16:173 Fjärrundervisning och entreprenad - nya möjligheter för undervisning och studiehandledning på modersmål(모국어를 통한 교육과 학습 지도의 새로운 가능성)	15/16	위원회	* 모국어 교사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외주 업체를 통해 원격 교육 형식으로 모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으나 이로 말미암아 학교장이 모국어 교육을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
med anledning av prop. 2016/17:143 En stadiindelad timplan i grundskolan och närliggande frågor(초중등학교 교과 과정과 관련된 문제)	16/17	위원회	* 이주 배경 학생이 특정 지역 및 학교에 몰리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음 * 모국어 교육이 다른 교과목 보다 차별받아서 안 됨(모국어 교육 참여율은 50% 수준에 불과)
För en likvärdig skola(평등한 학교를 위해서)	16/17	정당	* 이주 배경 학생이 특정 학교에 몰리고 있음 * 모국어 교육과 모국어 학습 지도가 지금 보다 훨씬 강화될 필요가 있음
Rättighetsbaserat flyktingmottagande byggt på välfärd(복지에 기초한)	16/17	정당	* 이주 배경 학생이 특정 학교에 몰리면서 나타나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학교를 공립화해야 함 * 초등학교 선택권은 없어야 하며 학교

평등 기반 이주민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를 회사처럼 ‘경영’해서는 안 됨</li> <li>* 이주 배경 가족 자녀의 절반만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그 이유를 파악해야 하며 유치원에서도 모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li> </ul>
Sfi(이민자를 위한 스웨덴어)	17/18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민자를 위한 스웨덴어(svenska för invandrare, sfi) 교사의 수준이 너무 낮으며 그 수도 부족, 업무도 과중하고 업무 환경도 열악</li> <li>* Sfi 교육 체계와 교사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필요</li> </ul>
En inkluderande och likvärdig skola och förskola(포용적이고 평등한 학교와 유치원)	17/18	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국어 교육이 주로 방과 후 이루어지는 편인데 이를 바꿀 필요가 있음</li> <li>* 모국어 교사 양성 제도 및 처우를 강화할 것</li> <li>* 모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특히, 혼자 입국한 아동)</li> <li>* 모국어 교사를 고용하는 학교에 추가 보조금 지급</li> </ul>
En socialpolitik för jämlika levnadsvillkor(동등한 생활 환경을 위한 사회 정책)	17/18	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청에서 이민자 또는 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들의 모국어 또는 영어로 제공할 것</li> </ul>

좌파당은 현재 중앙당에 이어 제5당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공산주의 이념을 지지했으나 현재는 사회주의, 페미니즘 등을 기본 정치 노선으로 삼고 있으며 가장 좌파적인 색채를 가진다. 좌파당은 다른 어느 당보다 모국어 교육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발의안 수도 상대적으로 다른 좌파 정당보다 그 수가 많은 편이다.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좌파당은 모국어 교육을 철저히 해주 배경 학생의 ‘당연한’ 권리로 간주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대폭 확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안건이 개인 발의가 아닌 위원회 또는 정당 발의인 점도 좌파당이 모국어 교육의 확장을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당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과감한’ 주장이 눈에 띄는데 예를 들어 이주 배경 학생의 특정 학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학교 선택권을 폐지하고 모든 초중고교를 공립화하자는 주장, 최근에 입국한 이민자 및 난민 가정 학생을 위한 준비 과정(förberedelseklasser)을 없애고 공교육 체계에서 모국어 교육의 확장을 통해 이들의 적응을 돕자는 주장, 모국어 교육을 방과 후 수업이 아닌 일반 수업으로 전환하자는 주장, 모국어 교사 및 학습 보조 교사 수를 늘리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주장, 특히 모국어 교사를 채용하는 학교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주장 등은 좋은 예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좌파당은 현재 만성적인 모국어 교사 부족 문제로 말미암아 현재 우파 진영이 추진하고 있는 모국어 원격 교육의 도입을 어쩔 수 없이 찬성하면서도 이에 따른 폐해 방지 필요성을 지적한 유일한 정당이다. 더불어 사회민주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공 부문 내 스웨덴어 외 모국어 서비스 확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정리하면, 좌파당의 모국어 교육 관련 입장은 보편적 평등주의 관점에서 이주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좌파의 이념적 색채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 4.3. 녹색당(Miljöpartiet, MP)

현재 자유당에 이어 제8당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녹색당은 1980년 핵발전소 폐쇄를 주장하던 세력이 중심이 되어 1981년 창당했으며 정치적으로는 사회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중도좌파에 가깝다. 녹색당의 모국어 교육에 대한 태도는 전반적으로 좌파당과 사회민주당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녹색당의 주장은 좌파당과 마찬가지로 평등주의에 입각한 이념적 차원에서 모국어 교육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수위’가 다소 조절된 편이다. 예를 들어, 좌파당의 전체 초중고교 공립화, 모국어 교육을 현재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장 그리고 신규 모국어 교사 양성 등과 같이 대규모 신규 투자가 요구되는 주장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사회민주노동당의 주장보다는 훨씬 모국어 교육에 대하여 급진적인 태도를 보이는 편인데, 특히 녹색당에서 유일하게 주장한 모국어 교육 과정 수료 시 대학 입학 가산점 등과 같은 문제는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사회민주노동당과 마찬가지로 모든 발의안이 의원 개인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도 참고할만하다.

전반적으로 좌파 계열 정당의 모국어 교육 관련 발의안이 대부분 스웨덴 내 공식 5개 소수 민족보다 이주 배경 학생의 모국어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녹색당의 경우 (비록 발의안 한 건에 불과하지만) 좌파 계열 정당 가운데 유일하게 전자의 모국어 학습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후술하겠지만, 우파 계열 정당의 경우 후자보다 전자의 학습 권리를 강조하는 편임).

<표 5> 녹색당의 모국어 교육 관련 발의안

발의안 제목	연도	주체	요약
Uppvärdera modersmålskunskaper (모국어 지식에 대한 평가)	14/15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 언어(moderna språk) 과목의 경우 대학 입학 시 가산점이 주어지지만 모국어(modersmål) 과목의 경우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음</li> <li>* 이는 낮은 모국어 교육 참여율로 이어지는 관계로 모국어 교육에도 가산점이 주어져야 함</li> </ul>
Nationella minoriteter och minoritetsspråk(공식 소수 민족과 이들의 언어)	15/16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식 소수 민족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학교 수가 적음</li> <li>* 모국어 교육을 받는 학생이 너무 적으며 교육도 부실</li> <li>* 초등학교에서 소수 민족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것은 학생의 권리라는 점을 법에 명시해야 함</li> </ul>
Tillgång till modersmålsundervisning för barn som placerats av socialtjänsten(복지 시설 거주 아동을 위한 모국어 교육)	15/16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 시설에 거주하는 이주 배경 학생의 경우 모국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시정돼야 함(참고로 거의 같은 법안이 중복으로 발의)</li> </ul>

Bättre etablering i skolan(이주 배경 학생의 학교 적응)	17/ 18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 배경 학생이 특정 학교에 몰리면서 교육 평등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는 묵과할 수 없음</li> <li>* 교육 지원금이 필요에 따라 배분될 수 있어야 함</li> <li>* 18세 이상 청소년 난민을 위해 특별 국가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된 바 있으며 이는 긍정적</li> <li>* Nyköpings högskoleutbildning과 같은 학교가 많이 나와야 함</li> </ul>
---	-----------	----	---

#### 4.4. 온건당(Moderaterna, M)

온건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의 가치를 강조하는 스웨덴의 대표적인 보수 정당으로 사회민주노동당에 이어 제2당의 지위를 차지하며 우파 연합(온건당, 중앙당, 자유당, 기독교민주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온건당은 기본적으로 모국어 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동시에 이보다 이주 배경 학생의 스웨덴어 습득에 사실상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심지어 모든 교사가 외국어로서의 스웨덴어(svenska som andraspråk, SVA)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특히 정당 발의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이들의 학업 성적 향상 및 진로 개발 등을 위해 다양한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예. 계절학기, 직업 교육 등). 다시 말해, 온건당은(비록 이를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스웨덴어 학습의 효과적인 도구 차원에서 모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제한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유치원 관련 안건을 제외하고 특히 초중고교 내 모국어 교육 개선 관련 발의안은 전혀 없는 형편이다.

7) 2014년 스웨덴 뉘셰핑(Nyköping) 지역의 네 개 중학교가 통합되면서 새롭게 개설된 학교로서 이후 서로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가진 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새로운 사회통합 교육 모형으로서 스웨덴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lt;표 6&gt; 온건당의 모국어 교육 관련 발의안

발의안 제목	연도	주체	요약
En bättre lärarutbildning(더 좋은 교사 교육)	15/ 16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어로서 스웨덴어(svenska som andraspråk, SVA)를 학습하는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교사는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고 있지 못함</li> <li>* 모든 교사는 SVA 지식을 학습할 필요가 있음</li> </ul>
Digitalt stöd till små skolor och elever med annat modersmål(소규모 학교와 스웨덴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을 위한 원격 교육)	15/ 16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국어 교육은 중요하지만, 교사 부족으로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못함</li> <li>* 이 문제는 원격 교육으로 해결 가능함</li> </ul>
Bättre undervisning i Svenska som andraspråk(외국어로서 스웨덴어의 효과적 교육)	15/ 16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 가정 자녀 자녀의 스웨덴 사회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SVA 교육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li> <li>* 심지어 낙인 현상까지 생기고 있으므로 모든 교사는 SVA 지식을 습득해야 함</li> </ul>
Sverige kan mer – Politik som bryter det nya utanförskapet(스웨덴은 더 할 수 있다 – 새로운 사회통합 정책)	15/ 16	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에서 이주 배경 아동을 위해 효과적인 스웨덴어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li> </ul>
En modern kunskapsskola(현대적인 지식학교)	15/ 16	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웨덴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모든 교사가 SVA 지식을 학습할 필요가 있음</li> <li>* 관련 용역 연구를 수행해야 함</li> </ul>
Språkliga rättigheter för urfolk och minoriteter 2016(소수 민족의 언어 권리)	16/ 17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개 공식 소수 민족 유이는 유치원에서 더 좋은 모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함</li> <li>* 양로원과 비교해 유치원의 발전이 더딤</li> </ul>
Finlandssvenskar som nationell minoritet(공식 소수	16/ 17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핀란드 스웨덴인을 6번째 공식 소수 민족으로 편입시켜야 함</li> </ul>

민족으로서 핀란드 스웨덴인)			
Insatser för nyanlända barn och vuxna(이주 가정 자녀와 성인을 위한 투자)	16/17	위원회	* 이민자를 위한 교육 평등 차원에서 sfi 교육 자료를 전산화한 후 이를 인터넷에 올릴 필요가 있음
Plan för ett starkare Sverige: Bryt utanförskapet(더 강한 스웨덴을 위한 계획: 통합정책)	16/17	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교사는 특수교육학 및 SVA 지식을 습득해야 함</li> <li>* 이주 배경 학생은 현재 최대 6개월간 준비 과정에서 스웨덴어 및 스웨덴 사회에 대해 학습한 후 일반 학교로 진학하는데 진학 기준이 여전히 모호함</li> <li>* 이들의 학업 증진을 위해 계절학기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음</li> <li>* 많은 이주 배경 학생은 직업 교육과 언어 교육을 함께 받고 싶어 하지만 현재 이것이 불가능하며 이는 수정되어야 함</li> <li>* 이들이 학교 선택권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li> </ul>
Plan för ett starkare Sverige: Nolltolerans mot dåliga skolor(더 강한 스웨덴을 위한 계획: 나쁜 학교에 대한 불관용)	16/17	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교사는 특수교육학 및 SVA 지식을 학습해야 함</li> <li>* 디지털 환경에서 교사의 새로운 능력이 요구되며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li> <li>* 교사양성과정 입학 기준을 높여 교사의 질을 높여야 함</li> <li>* 학생이 원하는 경우 짧은 시간 동안 더 많은 학점을 이수, 교사양성과정을 빨리 이수할 수 있도록 학제를 개편해야 함</li> </ul>
Språkliga rättigheter utanför förvaltningsområdena(관리지역 바깥에서의 언어 권리)	17/18	개인	* 공식 소수 민족 언어 교육 및 관련 서비스는 이들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타 지역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해결책 필요
Utbildning som leder	17/	위원회	* 이민자를 위한 스웨덴어 교육이 강화될

till jobb(직업으로 이어지는 교육)	18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모국어 교육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Mer kunskap i skolan för ett växande Sverige(성장하는 스웨덴을 위한 학교 내 새로운 지식)	17/18	정당	* 모든 교사가 특수교육학 및 SVA 지식을 습득해야 함
Ett starkare Sverige(더 강한 스웨덴)	17/18	여러 정당	* 과거 우파 연합 정권이 추진한 'föreskolelyftet(유치원 발전 계획)'이 계속 추진되어야 함(모국어 교육 포함)
Utgiftsområde 16 Utbildning och universitetsforskning(16개 교육 및 대학 연구 지출 부문)	17/18	여러 정당	* 위와 동일
med anledning av prop. 2015/16:173 Fjärrundervisning och entreprenad - nya möjligheter för undervisning och studiehandledning på modersmål(외주 원격 교육 - 모국어 교육 및 학습 지도를 위한 새로운 기회)	15/16	여러 정당	* 우파 연합은 오랫동안 외주 업체를 통한 원격 교육의 시행을 주장 * 모국어 원격 교육은 학생 수가 적은 지역에서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교육 평등에 이바지할 수 있음 * 현재 '현대 언어'와 '모국어' 과정에서만 원격 교육이 허용되고 있으나 앞으로 더 많은 과정이 포함돼야 함

또한, 온건당이 좌파 정당과 뚜렷이 구분되는 차별점으로 교육 평등보다 선택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모습을 꼽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온건당은 이주 배경 학생이 특정 학교에 몰리는 문제가 오히려 학교 선택의 자유를 촉진함으로써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식 소수 민족 모국어 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관심 그리고 이후 소개될 다른 우파 정당과 마찬가지로 교육 평등 논리에 근거한 원격 교육의 확대 등도 분명한 차별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원격 교육의 경우 이것이 모국어 교육의 차별을 의



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온건당을 비롯한 모든 우파 정당이 원격 교육을 모든 과목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유치원 모국어 교육, 양로원 모국어 교육 인력 배치 등과 같은 문제의 경우 좌파 정당과 같은 태도를 보인다.

#### 4.5. 중앙당(Centerpartiet, C)

1913년 농민협회에서 출발하여 정당으로 성장한 중앙당은 현재 제4당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파 연합의 일원 중 하나이다. 다른 우파 정당과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의 가치를 강조하지만 동시에 환경 보호 및 성 평등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보인다.

중앙당의 모국어 교육에 대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온건당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해, 중앙당은 기본적으로 이주 배경 학생을 위한 모국어 교육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취하지만 모국어 교육의 중요성보다 스웨덴어 능력의 빠른 습득을 훨씬 강조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당은 이주 배경 학생의 스웨덴어 습득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들을 스웨덴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과 섞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언어적 측면에서 모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다소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몇 가지 중앙당만의 고유한 주장을 살펴보면 먼저 이주 배경 가족에게 주어지는 거주 보조금을 줄이고 이를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 이중언어 수업 확대, 이민자 창업 촉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주 배경 가족 어머니를 모국어 교사로 활용하자는 주장도 중앙당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스웨덴에서 모국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별다른 자격이 필요치 아니하며,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모국어 교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스웨덴 정당마다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는데 예를 들어 좌파 정당의 경우 (비록 현재는 심각한 모국어 교사 수급 부족 문제로 실행이 곤란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 품질을 높이기 위해 모국어 교사 자격을 상황에 맞추어 서서히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파의 경우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이를 원격

교육으로 돌릴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중앙당의 주장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 중앙당의 모국어 교육 관련 발의안

발의안 제목	연도	주체	요약
Utbildning till jobb(직업으로 이어지는 교육)	15/16	위원회	* 이주 배경 학생이 빨리 스웨덴어를 배울 수 있도록 추가 조치 필요
Närodlad integration(일상의 통합정책)	15/16	위원회	* 이민자도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예. 창업 관련 신고 절차 간소화 등)
Sveriges jobbskaparbudget(스웨덴의 일자리 창출 예산)	15/16	정당	* 이주 배경 학생이 빨리 스웨덴어를 습득하는 것은 중요 * 가장 좋은 방법은 스웨덴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과 섞는 것 * 먼저 원격 교육을 통해 모국어로 준비 교육을 받고 빨리 일반 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바람직
med anledning av prop. 2015/16:100 2016 års ekonomiska vårproposition(2016년 봄 예산안과 관련하여)	15/16	정당	* 이민자도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 * 교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잠시 교사 자격 조건을 완화하고 은퇴 교사도 원한다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이주 배경 어머니도 모국어 교사로 활용해야 함 * 원격 교육은 이주 배경 학생의 초기 적응에 효과적
Ramkonventionen för skydd av nationella minoriteter(국가 공식 소수 민족의 보호에 관한 관례)	16/17	정당	* 핀란드 스웨덴인도 공식 소수 민족에 편입되어야 함
Älvdalskan som eget språk(독립 언어로서 엘프달리아어)	16/17	개인	* 엘프달리아어(älvdalskan)를 공식 소수 민족 언어로 편입시켜야 함

Utbildning(교육)	16/17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골 학교를 위해 원격 교육을 허용해야 함</li> <li>* 이주 배경 학생이 학교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것</li> </ul>
Bättre mottagande och snabbare etablering(더 나은 그리고 빠른 사회통합)	16/17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민자가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할 것</li> <li>* 교사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교사 자격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것</li> <li>* 다문화 가정 부모를 교사로 활용할 것</li> <li>* 모국어 교육은 물론, 다른 과목도 원격 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li> </ul>
Nytt ledarskap för Sverige(스웨덴의 새로운 리더십)	16/17	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 배경 학생의 성적이 다른 학생보다 떨어지는 편인데 이를 위해 스웨덴어 교육 시간이 늘어나야 하며, 계절학기 및 원격 교육도 열려야 함</li> <li>* 이주 배경 가족에게 지원되는 거주 보조금 중 일부가 교육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함</li> <li>* 현재 시범사업 중인 이중언어 수업이 확대되어야 함(참고: Haninge kommun에서 핀란드-스웨덴어 이중언어 교실 운영 중)</li> <li>* 모국어로 수업 지도를 받을 수 있어야 함</li> </ul>
med anledning av prop. 2015/16:100 2016 års ekonomiska vårproposition(2016년 봄 예산안과 관련하여)	16/17	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ytt ledarskap för Sverige”와 동일</li> </ul>
Fjärrundervisning i skolan(원격 교육)	17/18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격 교육을 모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 과정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li> </ul>
Migration och mottagande(이주민 통합)	17/18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 배경 학생을 위한 스웨덴어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li> <li>* 이들 가운데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학습 과목을 줄이고 소수 핵심 과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예, 직업 교육)</li> <li>* 이들을 위해 원격 학습이 이루어져야</li> </ul>

			합 * 계절학기도 열릴 필요가 있음 * 시범사업 중인 이중언어 수업 확대 필요
Låt inte Sverige klyvas(스웨덴의 분열을 막자)	17/18	정당	* 이주 배경 학생이 스웨덴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해야 함(모국어 교육 및 학습 보조 포함)
med anledning av prop. 2017/18:100 2018 års ekonomiska vårproposition(2018년 봄 예산안과 관련하여)	17/18	정당	* 위의 주장 반복

#### 4.6. 자유당(Liberalerna, L) 및 기독교민주당(Kristdemokraterna, KD)

개인의 자유, 선택의 권리를 다른 모든 스웨덴 정당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자유당(구 folkpartiet)은 2018년 선거 결과 현재 제7당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도 이전에는 사안에 따라 좌우와 모두 협력하는 이념적으로 유연한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는 확실히 우파적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가족, 노인 및 세금 감면 문제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인 바 있는 기독교민주당은 현재 제6당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기독교민주당의 경우 몇몇 우파 연합 공동 발의안을 제외하고 정당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발의한 안건은 단 한 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독교민주당은 모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다른 우파 정당과 같은 태도를 보인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반면, 자유당의 경우 (물론, 기본적으로 다른 우파 정당과 같은 노선을 유지하지만) 몇몇 새로운 주장이 눈에 띈다. 특히, 종교 단체의 사립학교 건립을 금지하는 안건은 비록 모국어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자유당의 이민자 또는 특히 무슬림 난민에 대한 태도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또한, 다른 공식 소수 민족 언어를 ‘모국어’가 아닌 다른 용어로 지칭하자는 안건은 다소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서로 다른

모국어 간 경계를 설정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을 것이다. 나머지 공공 부문 내 스웨덴어 외 모국어 서비스 확장 등과 같은 문제는 다른 좌파 정당과 입장을 함께 한다.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는 난민을 위한 언어 서비스는 자유당만의 주장이라는 점은 흥미롭다.

<표 8> 자유당 및 기독교민주당의 모국어 교육 관련 발의안

발의안 제목	연도	주체	요약
Utgiftsområde 17 Kultur, medier, trossamfund och fritid(KD)(17개 문화, 미디어, 종교, 여가 지출 부문)	15/ 16	위원회	* 공공 기관에서 통역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예산 필요
Insatser för människor med postraumatiska stressyndrom efter tortyr och krigsupplevelser(L)( 전쟁 및 고문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는 사람을 위한 지원)	14/ 15	개인	*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는 난민 치료를 위해 당사자의 출신 언어 및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간호 인력에 포함되어야 함
Liberal minoritetspolitik(L)(자 유민주주의적 소수 집단 정책)	15/ 16	위원회	* 공식 소수 민족 언어의 보존을 위해 관련 언어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함 * 이들은 충분한 모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함(참고로 거의 같은 법안이 중복으로 발의)
med anledning av prop. 2016/17:100 2017 års ekonomiska vårproposition(L)(201 7년 봄 예산안과 관련하여)	16/ 17	정당	* 이주 배경 가족 자녀의 낮은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 방과 후 학교, 계절학기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야 함 * 모국어 교육 및 모국어 학습 지도 교사 등도 포함 * 이러한 조치가 스웨덴어 습득에 장애가 돼서는 안 됨 * 종교 학교는 이주 배경 가정의 고립화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금지

Utgiftsområde 13 Jämställdhet och nyanlända invandrarers etablering(13개 평등 및 해외 이민자 정착 관련 지출 부문)	17/ 18	위원회	* 종교 학교를 금지해야 함 * 이는 이주 배경 가정의 고립 현상을 초 래할 수 있음
med anledning av prop. 2017/18:199 En stärkt minoritetspolitik(강한 소수 집단 정책)	17/ 18	위원회	* 현재 공식 소수 언어도 ‘모국어’라는 이 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다른 명칭을 만 들 필요가 있음(이들 언어는 다른 “모 국어”와 법정 조건이 다름)
Liberal integrationspolitik: Stärk individen och motverka parallellsamhällen(자 유민주주의적 통합정책)	17/ 18	정당	* 자유당은 집단보다 개인을 우선시하며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 * 종교도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종교 학 교는 금지되어야 함
En budget som håller ihop Sverige - Liberalernas budgetmotion för 2018(스웨덴을 하나로 모으는 예산안)	17/ 18	정당	* 종교 학교를 금지해야 함 * 이는 이주 배경 가정의 고립 현상을 초 래할 수 있음 * 모국어 교육을 통해 새로 입국한 학생 의 적응을 도울 필요가 있음

#### 4.7. 스웨덴 민주당(Sverigedemokraterna, SD)

1988년 설립된 스웨덴민주당은 스웨덴의 민족주의 극우 정당으로 최근 스웨덴 내 성장한 반난민 정서를 등에 업고 크게 약진, 현재 제3당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뚜렷한 반이민주의 - 특히, 반이슬람주의 - 태도를 보이며 역사적으로 과거 양차 대전 이전 형성된 스웨덴 파시즘 세력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표 9> 스웨덴민주당의 모국어 교육 관련 발의안

발의안 제목	연도	주체	요약
Lärarlegitimation utan undantagsregler(예외를 두지 않는 교사 자격)	14/15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국어 교사를 포함) 교사 자격 부여에 예외를 두지 말 것</li> <li>* 정식 자격이 없는 교사가 학생에게 성적을 부여하지 못하게 할 것</li> </ul>
Ändringar i Lpfö 98 (reviderad 2010)(유치원 교육 과정 98 수정과 관련하여)	14/15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국어 교육은 이민자 및 난민 가족 자녀의 스웨덴 사회 적응을 어렵게 하며 비용도 많이 드는 편</li> <li>* 덴마크도 비슷한 문제로 모국어 교육을 포기</li> <li>* 스웨덴도 유치원 모국어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li> <li>* 모든 다문화 가족 아동은 유치원에서 스웨덴어를 배워야 하며 이를 통해 스웨덴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함</li> </ul>
med anledning av prop. 2015/16:173 Fjärrundervisning och entreprenad - nya möjligheter för undervisning och studiehandledning på modersmål(외주 원격 교육 - 모국어 교육 및 학습 지도를 위한 새로운 기회)	15/16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국어 교사를 전부 스웨덴어 교사로 바꾸고 모국어 교육을 없애야 함</li> <li>* 만약 모국어 교육을 남기고 싶다면 이를 전부 원격 교육으로 바꾸어야 함</li> </ul>
Samiska språk- och utbildningsfrågor(사미족 언어와 교육 문제)	15/16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미족의 언어 및 문화를 배우고 연구할 수 있는 고등 언어 센터가 필요(참고로 거의 같은 법안이 중복으로 발의)</li> </ul>
Ändra 2 kap. 17 § skollagen om utländska lärares möjlighet att undervisa(외국인 교사의 강의 자격 관련 법안 수정 요구)	16/17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법을 따르면 영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 교사 교육을 받은 외국인도 정작 스웨덴에서는 언어를 가르칠 수 없으며 다른 과목을 외국어로 강의하는 것만 허용됨</li> <li>* 이러한 제한을 없애고 이들이 언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함</li> </ul>

<p>Förslag för en förskola i världsklass(세계적 수준의 유치원을 위한 제안)</p>	<p>16/17</p>	<p>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에서 모국어 교육보다 스웨덴어 교육을 먼저 해야 함</li> </ul>
<p>En skola i världsklass(세계적 수준의 학교)</p>	<p>16/17</p>	<p>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국어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 스웨덴어 실력도 높아진다는 증거는 없음(예. 덴마크 사례)</li> <li>* 따라서 모국어 교육을 폐지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정 실시해야 한다면 공교육 체계 바깥에서 이루어져야 함</li> <li>* 이민자 및 난민 자녀를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초기 적응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함</li> <li>* 관련 전문학교 설립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는 모국어 교육을 없애고 남은 자원을 투입하면 쉽게 해결될 것(교육 내용은 스웨덴어와 스웨덴 사회에 대한 이해)</li> <li>* 일반 학교에서도 스웨덴어만 사용하는 것이 이들 학생의 스웨덴어 실력 향상에 효과적인 것임</li> </ul>
<p>Biblioteksfrågor(도서관 문제)</p>	<p>16/17</p>	<p>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은 공식 5개 소수 민족의 언어를 제외하고 다른 언어(예. 아랍어)로 쓰인 책보다 스웨덴어로 쓰인 책을 먼저 사야 함</li> <li>* 세계 언어라는 명분으로 다른 언어로 쓰인 책을 사지 말 것</li> </ul>
<p>Svenska som nationalspråk(국가 언어로서 스웨덴어)</p>	<p>17/18</p>	<p>개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보다 스웨덴어의 지위가 점점 낮아지고 있음</li> <li>* 법에 "officiellt språk(공식 언어)", "huvudspråk(주 언어)" 등의 표현이 사용되는데 이것을 "nationalspråk(국가 언어)"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li> </ul>
<p>Återta den svenska förvaltningsrättsliga traditionen(스웨덴)</p>	<p>17/18</p>	<p>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청에서 수화나 공식 소수 언어가 아닌 기타 언어 통역 서비스가 이루어질 필요는 없음</li> </ul>



공공부문 전통의 재확립)			
---------------	--	--	--

<표 9>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스웨덴민주당의 주장은 이민자 및 특히 난민 대상 모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매우 부정적인 - 심지어 공격적인 -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다른 우파 연합에 속한 정당(온건당, 중앙당, 자유당, 기독교민주당)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좌우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이 기본적으로 모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 비록, 주안점은 서로 다르지만 - 인정하는 반면, 스웨덴민주당의 경우 특히 덴마크 사례를 예로 들면서 모국어 교육의 효과성 자체를 완전히 부정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민자 및 난민 대상의 모국어 교육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최소한 이를 모두 원격 교육 형태로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우파 연합이 주도하여 추진 중인 유치원 모국어 교육의 확대에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공식 소수 민족 대상 모국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다른 정당과 마찬가지로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는 스웨덴민주당이 스웨덴 영토 내 공식 소수 민족의 사회적 지위를 이민자 및 난민과 확실히 구분 짓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스웨덴민주당이 좌우를 막론하고 다른 당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스웨덴민주당은 교사 자격 조건에 예외를 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정당이다. 이미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별다른 자격 조건 없이 학교장 승인만으로 학교에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사는 모국어 교사가 유일하지만, 여전히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웨덴민주당은 모국어 교사의 즉각적인 자격 조건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교사 수급을 더욱 어렵게 만들으로써 모국어 교육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모국어 교육 폐지와 같은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로, 스웨덴민주당은 신규 이민자 및 난민의 스웨덴 사회 초기 적응을 돕는 전문학교의 설립을 주장하는 유일한 정당이다. 이를 위해 모국어 교육을 폐지하고 이에 드는 예산을 전문학교 설립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는 시행 방법에 따라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겠으나 매우 높은 확률로 낙인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 부문 내 스웨덴어 외 모국어 서비스 확장을 반대하는 유일한 정당이다. 이러한 스웨덴민주당의 지나치게 극우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현재 다른 우파 연합 정당도 스웨덴민주당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위의 발의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5.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스웨덴 정당은 유일하게 스웨덴민주당을 제외하고 모두 모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모국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와 관련하여 개별 정당의 정치적 지향점에 따라 꽤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 다문화 관련 정책이 일반적으로 수혜적 또는 온정주의적 성격을 보이는 관계로 좌우간 의견 차이가 뚜렷하게 대립하지 않는 편이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스웨덴 의회 내 모국어 교육에 관한 네 가지 담론

<p><u>좌파적 담론</u> 좌파당, 녹색당</p>	<p>평등주의적 관점: 사회적 평등 관점에서 이주 배경 학생의 모국어 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p>
<p><u>중도 좌파적 담론</u> 사회민주당</p>	<p>다중언어정책 및 교육적 관점: 다중언어 사회를 구축하고 이주 배경 학생의 낮은 학업 성취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모국어 교육이 중요하다.</p>
<p><u>중도 우파적 담론</u> 온건당, 중앙당, 기독교민주당, 자유당</p>	<p>언어동화정책 및 교육적 관점: 모국어 교육은 최근 입국한 이주 배경 학생의 스웨덴어 및 기타 교과목 학습을 위해 필요하다.</p>
<p><u>우파적 담론</u> 스웨덴민주당</p>	<p>민족주의적 관점: 모국어 교육은 스웨덴어 학습을 더디게 하며 스웨덴인으로서 정체성 확립에 장애물로 작용하므로 폐지해야 한다.</p>

더불어 분석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기타 모국어 관련 주제에 대한 정당별 입장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스웨덴 의회 내 기타 모국어 교육에 관련 주제에 대한 정당별 입장

개별 주제명	정당별 입장
유치원 모국어 교육 확대 여부	* 스웨덴민주당을 제외하고 모두 찬성
최근 입국한 이주 배경 학생의 초기 적응 과정	* 이들을 위해 따로 특수 학교의 설립을 주장하는 스웨덴민주당을 제외하고 모든 당이 일반 초중고교의 역할을 강조 * 다른 당과 달리 좌파당의 경우 초기 적응 과정은 최대한 짧은 것이 바람직하며 곧바로 일반 학급으로 옮긴 후 모국어 교육을 통해 스웨덴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
원격 교육	* 좌파당의 다소 유보적인 견해를 제외하면 모든 정당이 찬성 * 우파 정당의 경우 전면적인 확대를 주장하지만 좌익 정당의 경우 모국어 교사 부족 문제 때문에 취할 수밖에 없는 차선책으로 간주하는 편
공공 부문 내 스웨덴어 외 모국어 서비스	* 스웨덴민주당을 제외하고 모두 적극적으로 찬성
이주 배경 학생 학교 쏠림 현상(학교 선택권 논란)	* 좌파와 우파 정당 간 의견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 * 좌파 정당은 학교 선택권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우익 정당은 이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강화할 것을 주장
공식 소수 민족 모국어 처우	* 우파 정당이 훨씬 우호적인 태도(이주민의 모국어와 공식 소수 민족의 모국어를 법적 차원에서 확실하게 구분할 것을 요구)
모국어 교사 자격	* 좌파 정당의 경우 모국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상황에 따라 모국어 교사 수급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자격 요건 강화 * 우파 정당의 경우 현재 상황 유지 * 스웨덴민주당의 경우 즉각적인 자격 요건 강화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면 앞으로 스웨덴에서 모국어 교육이 크게 확장될 가능성은 비교적 적은 편이며 (물론, 앞으로 정치적 논의 결과를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지만) 오히려 외주 원격 교육 형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앞으로 모국어 교육이 과연 이주 배경 학생의 모국어 능력 향상을 궁극적인 목표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스웨덴어 학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것인지 불분명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정치적인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참고로, 노르웨이 정부는 뚜렷하게 후자를 선택했으며, 따라서 모국어 능력 향상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모국어 교육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이미 스웨덴의 모국어 교육 시행 역사가 약 40년에 가깝다는 점 그리고 1991년 경제위기 이후에도 비록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으나 폐지까지 이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스웨덴이 노르웨이가 선택한 길을 걸을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원격 모국어 교육 도입이 과연 앞으로 모국어 교육 환경을 어떻게 바꿀지는 미지수이며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의 모국어 교육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미 위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지원 사업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구 보건복지가족부)를 중심으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2009년부터 대졸 이상 한국어가 능통한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일선 초중고교에서 한국어와 모국어를 가르치는 이중언어강사를 양성하기 시작했다(이중언어강사 양성 및 배치 사업). 초기 시범 사업은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행되었다. 이들 교육청은 각각 서울교육대학교 그리고 경인교육대학교와 연계, 총 900시간의 이중언어강사 양성 과정을 개발·운영했으며(5기부터는 600시간으로 감소), 해당 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중언어강사로 지역 내 다문화학생이 많은 학교에 먼저 배치되었다(교육비는 전액 무료; 1기는 초등학교, 2기는 유치원, 3기는 중학교에 배치). 이후 교육부는 2012년 3월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의 발표와 함께 이중언어강사 양성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중언어강사라는 명칭이 ‘다문화언어강사’로 변

경되었다. 교육부는 2015년까지 다문화언어강사를 1,200명까지 양성·배치할 계획이었지만, 강사 처우 문제가 불거지면서 기존 강사 가운데 상당수가 이후 취업을 포기, 실제 배치는 약 4~500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2014년 말 기준 9개 시도 총 425명의 강사 배치).

이러한 시도는 매우 의욕적이지만 이처럼 모국어 교사를 새롭게 양성하고 이를 하향식으로 일선 학교에 투입하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많은 재원이 투입되며 학교마다 다문화 학생 수가 들쭉날쭉하고 특히 이들이 구사하는 모국어의 수가 많을수록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 처우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다양한 개선이 요구된다. 스웨덴도 마찬가지로 모국어 교사 수급 문제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모국어 교육이 확장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도 좀 더 비용이 적게 드는 현실적인 모국어 교사 양성 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곳이다. 스웨덴의 경우 따라서 학교장의 승인만으로 모국어 교사 활동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교사가 부족한 형편이다.

더불어, 특히 모국어 교육 수요 예측과 관련하여 스웨덴의 경우는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스웨덴의 경우 현재 모국어 교육이 방과 후 학습 형태로 이루어지며 참여율은 약 50% 수준이다. 이는 스웨덴 정부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수준으로 한국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결과를 따르면 모국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내 다문화 청소년 수는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스웨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모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현재보다 훨씬 좁고 구체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강유덕·오현정. 2011. “유럽의 경기침체와 최근 극우주의의 부상”. 『지역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1-11.
- 고상두. 2012. “이주자 사회통합모델의 비교분석: 네덜란드, 독일, 한국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46집 제2호. 한국정치학회, pp. 241-264.
- 고은.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교육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모형제안”. 『교육의 이론과 실천』 15호. 한독교육학회, pp. 1-24.
- 김철주. 2017. “스웨덴 거주 이주민 밀집지역의 게토화 실태와 원인: 말뫼(Malmö)시 사례를 중심으로”. 『스칸디나비아연구』 20호.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pp. 43-82.
- 설동훈·이병하. 2013. “다문화주의에서 시민통합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5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pp. 207-238.
- 신광영. 2016. “왜 스웨덴에서 극우정당이 급성장하는가?”. 『스칸디나비아연구』 18호.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pp. 1-30.
- 신동일·김가현·박수현·박세은. 2015. “국내 단일언어주의 정책 변화의 필요성 탐색”. 『다문화와 평화』 9호.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pp. 143-162.
- 오창룡. 2016. “프랑스의 도시 분리와 인종 갈등: 전쟁기계 개념을 통한 게토(ghetto)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프랑스논집』 95권. 한국프랑스학회, pp. 259-283.
- 우영경·김은하. 2016. “다문화 이중언어 사용능력이 적응유연성 및 문화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연구』 9호. 한국다문화교육학회, pp. 63-81.
- 이승숙·곽승주. 2013. “다문화가정 유아의 이중언어 경험 탐색: 어머니 모국어 발달 지원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7호.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pp. 349-378.
- 이승숙·배지희. 2015. “이중언어 교육지원 과정에 참여한 중국 결혼이민자가 정 어머니와 자녀의 어려움 및 변화 과정”. 『육아지원연구』 10호. 한

- 국육아지원학회, pp. 53-84.
- 황상심·강복정. 2016. “다문화아동의 이중언어사용 추이 연구”. 『언어치료연구』 25호. 한국언어치료학회, pp. 123-134.
- 홍세영. 2017. “스칸디나비아 다문화 법적 체계 및 통합 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사회법연구』 33호. 한국사회법학회, pp. 141-188.
- 황정원. 2016. “우리나라의 다문화 학생 현황”. 『교육개발』 통권 197호. 한국교육개발원, pp. 7-35.
- Alarian, Hannah. 2011. *The Melting Pot Versus the Salad Bowl: American Attitudes Toward Acculturation of Middle Eastern immigrants*, Master's Thesis Paper.
- Alesina, Alberto & Glaeser, Edward. 2004.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A World of Differ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Allardt, Erik. 1979. *Implications of the Ethnic Revival in Modern Industrialized Society: A Comparative Study of the Linguistic Minorities in Western Europe*, Helsinki: Societas Scientiarum Fennica.
- Banting, Keith. 2005. “The Multicultural Welfare State: International Experience and North American Narratives”,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Vol. 39, pp. 98-115.
- Berry, John.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Vol. 46, pp. 5-68.
- Berry, John et al. 2006. *Immigrant Youth in Cultural Transition: Acculturation, Identity and Adaptation Across National Contexts*, Mahwah: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oeri, Tito & van Ours, Jan. 2013. *The Economics of Imperfect Labor Markets: Second Edi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orevi, Karin. 2014. “Multiculturalism and Welfare State Integration: Swedish Model Path Dependency”, *Global Studies in Culture and Power* Vol. 2, pp. 708-723.

- Corson, David. 1990. *Language Policy across the Curriculum*, Clevedon, UK: Multilingual Matters.
- Davies, Paul et al. 2008. "A Nation Challenged: The Impact of Foreign Threat on America's Tolerance for Divers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95, pp. 308-318.
- Esping-Andersen, Gøsta.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en, Gøsta. (ed.). 1996. *Welfare States in Transition: National Adaptations in Global Economies*, London: Sage
- Faist, Thomas. 1995. "Ethnicization and Racialization of Welfare-State Politics in Germany and the USA",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18, pp. 219-250.
- Jensen, Tina Gudrun et al. 2010. *The Historicity of (Anti-)racism and the Politics of Integration in Denmark*, Danish 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
- Johansson, Jan. 1992. *Det statliga kommittéväsendet: kunskap, kontroll, konsensus*, Stockholm: Stockholm University.
- King, Linda & Schielmann, Sabine. (eds.). 2004. *The Challenge of Indigenous Education: Practice and Perspectives*, Paris: UNESCO.
- Kymlicka, Will & Patten, Alan. (eds.). 2003. *Language Rights and Political 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áté, Domicián et al. 2017. "The Relations between Labour Market Institutions and Employment of Migrants", *Amfiteatru Economic Journal* Vol. 19, pp. 806-820.
- Open Society Foundation. 2014. *Europe's White Working Class Communities: A Report on Six EU Cities*, European Advisory Board.
- Romaine, Suzanne. 2006. "Planning for the Survival of Linguistic Diversity", *Language Policy* Vol. 5, pp. 443-475.
- Sainsbury, Diane. 2012. *Welfare States and Immigrant Rights: The Politics of Inclusion and Exclusion*, Oxford University Press.
- Sainsbury, Diane. 2006. "Immigrants' Social Rights in Comparative Perspective:



- Welfare Regimes, Forms in Immigration and Immigration Policy Regim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Vol. 16, pp. 229-244.
- Salö, Linus et al. 2018. “Mother Tongue Instruction in Sweden and Denmark - Language Policy, Cross-Field Effects, and Linguistic Exchange Rates”, *Language Policy* Vol. 17, pp. 591-610.
- Sen, Amartya. 2006. *Identity and Violence: The Illusions of Destin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Tollefson, James. (ed.). 1995. *Power and Inequality in Language Educati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riandis, Harry. 1997. Where is Culture in the Acculturation Model? *Applied Psychology* Vol. 46, pp. 55-58.
- Valdez, Sarah. 2014. “Visibility and Votes: A Spatial Analysis of Anti-Immigrant Voting in Sweden”, *Migration Studies* Vol. 2, pp. 162-188.

<Abstract>

**A Study on Perceptions of Mother-tongue  
Education in Sweden  
An Analysis of Motions Proposed in the Swedish  
Parliament between 2014~2018\***

Lee, Sung-Jun\*\* · Hong, Sae-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in detail the current discourse on mother language education being discussed in the Swedish National Assembly by analyzing the motions proposed by different Swedish parties from 2014 to 2018. To this ends, all the relevant motions including the word ‘modersmål’ during the period were collected on the Swedish National Assembly websit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most of the parties (with the only exception of Sweden Democrats) clearl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mother tongue education at least on a theoretical level. However, different parties showed different opinions concerning why mother tongue education is necessary (or unnecessary) depending on their political stance and from this, the author extracted four main types of discourse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further discusses the future direction of mother tongue education in Sweden and the implications on Korean mother tongue education policy.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Research Fund of 2018

\*\* Department of Brazil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gKyunKwan University

**Key Words: Mother tongue education, bilingual education, heritage language educatio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discourse analysis, Swedish parliament**

---

성명: 이성준(Lee, Sung-Jun)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브라질학과  
E-mail: sungjun\_lee@hotmail.com

성명: 홍세영(Hong, Sae-Young)  
소속: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mail: oliv30@naver.com

논문 접수일: 2018.11.30.  
수정원고 접수일: 2018.12.28.

논문심사 완료일: 2018.12.24.  
게재 확정일: 2018.12.31.

